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531 호

서기 2005년 6월 22일
(음력 5월 16일) 수요일

29

법공양 페이지

무조건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한다!

(지난 호에 이어서)

▲ 질문자: 두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 스님: 아, 또 도로 두번째예요? (대중 웃음)

▲ 질문자: 원래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아직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 스님: 하하하... 아주 한 사람이 그냥 뿌리를 뽑으려고 드는군요.

▲ 질문자: 이왕 나왔으니까 다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를 생활에서 수행의 자세에 대하여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인공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냥 안으로 녹이고 들어가면 그걸로써 모든 것이 다 끝이지, 그 외에 다른 말씀들은 다 굳어지고 사족인 걸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든지 업식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저희들의 녹이지 못한 그 인연으로 모르게 누가 되고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특히 관혼상제 같은 중요한 예법 중에서도 제례, 제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지내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님 말씀대로 우쭈떡 하나 놓고 물 한 그릇 놓고 꽃 한 송이 놓고 그렇게 지내고 싶어도 그 뒤에 구체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걸 몰라서 막상 시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공양을 할 때에 선원에서는 합장을

무는 제 뿌리를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다가 नी아 되는데, 놓다가 못 놓다가 놓다가 못 놓다가...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게 조금 미흡하구나.' 할 때는 거기서 체험을 좀 하게끔 합니다. 자기 근본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끌어 주는 마음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을 하고서 그 줄을 잡고 '아, 이렇하면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러면 그 줄을 잡고, 하나를 잡고 갑니다. 가다 보면 엉뚱하게 또 딴 걸로 왜 가지고 또 딴 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건 왜 그러냐? 세상만사가 용도가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한 용도의 한 굴림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용도가 오든 이렇게도 굴리고 저렇게도 굴려서 자기네가 지혜를 낳아서 이게 작용하는 거지, 어떻게 그거까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가르쳐 줘야 하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네 스승을 네가 스스로 찾아라 이겁니다. 네 스승을 네 스스로 찾았다면 그 안에서 다 걸잡이 되고,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처리하면서 굴리는 도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먹지 않던 것도 자기가 먹어 봐야 그 맛을 알듯이 본인이 먹어 보지도 않은 맛을 어떻게 알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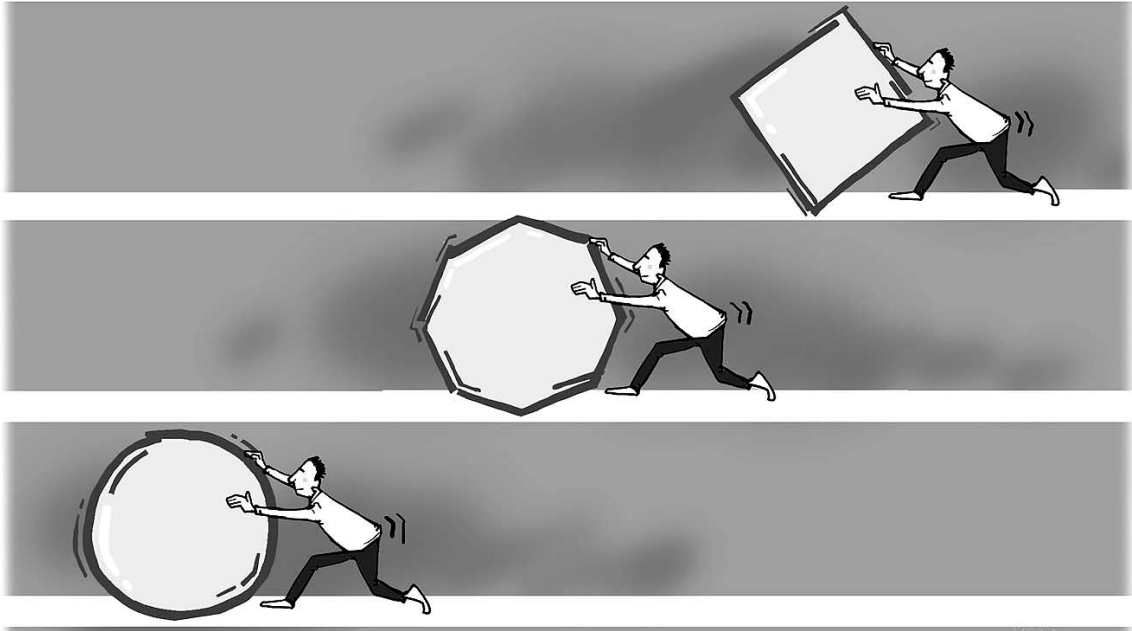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각자 자기의 자성을 믿지 않는다면 모두가 허깨비 같은 일이고

하고 공양을 잘하면서, 나가지 기독교인들은 참 절하는데 우리는 잘 안됩니다. 그러한 것들도 합장을 먼저 하는 기독교인들 보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주인공 생각이 뒤늦게 나거든요. 그렇지만 행이 바로 잘 나와지길 알아서 그렇게 마음은 뻐 하면서도 제 때 제 때 발휘가 안됩니다.

또 우리들이 선원에 들어올 때부터 법당에 앉을 때까지의 여러 가지 예법들, 하다못해 절하는 자세도 참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법도 하나의 행의 규범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요식이랄까요, 절차랄까요. 그러한 행하는 자세에 대한 가르침을 스님께서 문서로 하시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스님: 웬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살이에 말이 많죠. 수억갑을 거치면서 그 습관되고 짜든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 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용도대로, 덕지는 대로 굴러라.' 하는데, 그것이 용도에 따라 굴러가는 거죠. 아픈 것도 그냥 주인공에다가 굴러서 하면 그게 약사가 되고, 굴림이 자꾸 바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하나인데, 이쁜 거는 아픈 것대로 통신이 돼서 약사가 돼 주고, 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인공에서 입자가 나와서 조절해서 관세음이 돼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입자라는 말을 안 하고 보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이 즉, 이분이 보살이요, 바로 그것이 보살이요, 그것이 화신이요, 부처님의 마음 자체가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제각기 나오는 거죠.

그러나 주인공은 하나인데, 그 주인공 속에서 천차만별의 이름이 나오니 그건 무슨 연고나 이런 말입니다. '주인공' 하면 일체제불의 마음 전체가,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한데 합쳐지는 연고입니다. 그렇게 합쳐지는 그 마음속에서 바로 '내가 아름답다.' 하나가 거기서 그 마음이 통

신이 돼서, 즉 말하자면 약사보살이 탁 응신으로서 응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서 병명이 나와야 그 밑의 간호원들이 다 움직이거든요? 통신이 돼야 보살들이 움직이거든요, 응신으로서. 그러니까 겁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공부야.

그래서 조심할 건 바깥으로만 꼬달리지 말아야 거죠. 부처님도 그러셨지만 내 생각으로는, 옛날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지어서 지금 그냥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각자 자신을 믿어야지, 너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그건 마구나의 짓이니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각자라는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두 각자 나를 믿어야지' 요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전부 마구나의 짓이니까.' 이렇게 말을 했으니, 모두 예수님 하나로 그냥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껍데기를 찾아 들어간 거죠.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자기의 마음이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도 돌이 아니게 통신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아주 똑바로 '각자 너희들의 자성을 믿지 않는다'면 모두가 허깨비 같은 일이고, 모두가 꿈과 같고 바람과 같고 도깨비 같은니라.' 이러셨거든요. 그럼 두번째 끝났습니까?

▲ 질문자: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회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고난과 역난을 바라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믿고 놓고 관하는 과정에서 그냥 가고 가고 돌아 돌아 어떠한 고난이나 역난이 그냥 사라져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뿐이고, 또 그 과정에서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회향을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상 고난과 역난이 닥쳤을 때에는 당황하게 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서 온 것은 아니지만은 어찌 됐든, 어차피 겪어야 될 고난이나 역난이 왔을 때에는 그것이 바로 공부의 재료고 스승이다. 스승님이 나를 가르쳐 주러 오셨다 하는 생각을 내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오히려 그 경계가 하나의 회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고난과 역난을 적극적으로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거기서 정말 또한 소식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향은 좋고 감사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하는 그 회향이 더욱 큰 진전의 거름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스님: 회향이라는 것이 천차만별이죠. 지금 현재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서 인생의 회향을 어떻게 해야만 잘했다고 하느냐는 회향이 있습니

부를 못합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고(苦)도 낙(樂)도 없어서 공부가 아니 되죠. 낙도 고도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거지, 자기를 다스리고 공부하는 거지, 몸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 생사를 초월하고, 또 이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셨다. 가신다. 이런 언어가 끊어지고 살아생전에 회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체지에 회향을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일체지를 회향을 한다 이렇다면 그 회향이라는 이름도 방편입니다.

회향이라는 이름도 방편이지 회향이라는 그 자체는 찰나찰나... 예를 들어서 '내가 애들을 데리고 나갔으면 집에까지 데려다 놓는다.' 요게 회향입니다. 애들을 데리고 나갔으면 바깥에다 놔두고 그냥 있을 수는 없죠. 안애다가 데려다 놓는 것까지 회향입니다. 밥을 했으면 먹고 치운 게 회향입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무엇을 맡아서 해 준 다 그레 놓고 끝을 마치지 못하는 건 회향이 못 되죠. 그래서 그렇게 끝을 마치지 못하는 사람은 애

모두가 꿈과 같고 바람과 같고 도깨비 같은니라!

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집안을 난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생의 회향을 마치느냐, 또는 부인을 돌 셋씩 두어서 서로 은혈이 지게끔 해 놓고 회향을 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수수하게 잘 살다가 회향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둔다는 그러한 일념으로써 살아나면서 회향을 하느냐 이런 거죠.

또 이러한 공부를 하는 스님네들의 일체 회향이 있습니다. 일체 회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회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죽어서 회향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살아서 회향이 있는 까닭에 살아나온다 죽는다 이런 언어가 막히는 겁니다. 죽은 뒤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열반이 되고 회향이 돼야 진짜 그것은 삼세로, 즉 과거 현재 미래, 삼세로 찰나찰나 나투면서 보고 듣고 행하고 맘대로 자유권을 얻는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자유권을 얻음으로써 지금 부처님께서 이름을 지어서 말을 했다 하면, 그 넓은 끝없는 바다 가운데서 도장을 받았다. 이 소리나 똑같은 얘깁니다. 해인(海印)을 받았다, 해인을 받았다 하고 하죠.

그런 까닭에, 죽어서는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대의의 공부를, 죽고 사는 생사를 다 끊을 만큼 공

당초에 그런 일을 말지를 않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말지를 않죠. 내 능력과 내 분수를 알고 내 능력이 되는 일을 해서 끝을 마치죠. 그게 회향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들뜬 마음에서 그냥 인생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뿌려 놓고 자기가 회향을 못하고 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찰나찰나 회향이지 회향이 따로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스럽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저 진실하게 내가 뿌린 거 내가 거둔다. 나는 절대로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 속인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스무드하게 남을 나와 같이 생각하고 또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그러되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그렇게 착하기만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양면을 다 했습니다. 법도. 그래서 불, 법, 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말아야 회향을, 끝을 잘 맺는다.' 그 했죠.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무슨 좋은 일을 한다고 보증을 서 주거나, 빛 보증을 서거나 그럴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 봐서 만약에 그 집에서 안 갔어도 내가 갈 수 있는 능력이 될 때에, 또는 그거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집이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굴러라!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나 보증을 서는 거지, 아무한테나 보증 서는 게 아니죠. 자기 집 한 채 놓고 땅 몇 뼢이 있다고 보증을 탁 서 놓고선 그거 훌쩍 뺏기고 거지가 돼 가지고 식구들까지도 다 거지를 만들고 이러는 건 희망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하는 거를 착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착한 게 따로 있어요. 똑똑하고 착한 게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하게 살라고 그렇게 부처님이 가르친 게 아니죠. 정확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인자하구요. 동글고...

▲질문자1: 오늘 이 질문이 조금이라도 공덕이 된다면, 이 공덕이 우리 선원의 연세 많으시고 몸 불편하신 모든 보살님들에게 회향되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스님: 아유, 그렇게 말씀 마시오.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거요. 우주 천하가 다 듣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부처님만 자

▲질문자2: 광주광역시에서 왔습니다. 지난번 소년 소녀 가장 돕기 법회를 성황리에 마치게끔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광주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질문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 한마음 공부를 접하게 된 인연이 아니었다는 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선량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마음에 고통을 준 것을 생각하면 제가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인공에 관한 때마다 제 마음이 다 전달되기를 바라지마는, 그 마음이 아마 전달이 못 된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큰스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싶고, 두번째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제가 이 마음공부를 접하게 된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질문이 될

요. 그렇지만은 절실히 믿고... 지금 닥고 같은 상황 속에선 움작달작도 못하게 생겼어요. 내가 볼 땐, 하지만 진짜로 믿어서 통신이 된다면 귀인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 보세요.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그래서 못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문을 똑똑 걸어 잠그고서 불이 났어도 그 불덩이 속에서 빠져나가는 놈은 벽이 없고 붓장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지, 문만 찾아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깐 못 빠져나가요. 아직은 덕에서 신심이 돼서 그걸 잘 납득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닥의 나무는 닥의 뿌리만 믿고 '너 뿌리만이 에너지를 줄 수 있어, 뿌리만이 가지와 잎새에 꽃이 피게 할 수 있어.' 하고서 모든 걸 거기다가 하세요.

▲사회자: 질문 이제 끝났습니다.

▲스님: 그러세요? 그럼 뭐 다행이로군요. 하여튼 잘나잘나 희망이 있지, 미래에 희망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울려놓고 예뻐 보이고 마치 내려가면 희망입니다. 그거와 같이 인생살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잘나 잘나, 내가 얼마나 뿌리고 얼마나 거뒀는가 그것이 정확해야만이 희망이 잘나잘나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처님이

내 뿌리만이 에너지를 줄 수 있다

뿌리만이 가지와 잎새에 꽃이 피게 할 수 있다

꾸 섬기기에 부처님을 갖다가 그냥 바깥에 내다 놓고 부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부처를 믿고 온다면 다 안 와도 좋다.' 이랬습니다. 다 안 와도 이 법당 안에 꼭 차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깃덩어리를 믿으려고 하지도 말고, 형상을 믿으려고 하지도 말고, 같이 돌이 아니게 생각하라. 내 몸과 돌이 아니요, 내 생명과 돌이 아니요, 내 마음과 돌이 아니니까 그 돌이 아닌 걸로만 알고 나가라. 법당에 들어오면 부처님한테 다 일임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일임으로써 삼정례를 하든지, 급하면 일정례를 하든지, 팔정례를 하든지 칠정례를 하든지 그러되, 그 정례가 끝나고 나면 바로 네가 다 가지고 안고 가는 게 주인공이다.'는 겁니다. 자기 주인공한테 감사하고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부처는 자기가 가는 데마다 있는 거예요. 부처는 자기가 변소에 앉아 있으면 변소에 계시고, 들에 서 있으면 서 있는 부처가 들에 계시고, 바깥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부처가 계시고,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부처가 계시고, 또 방 안에서 자면 자는 부처가 계시고,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면 큰일이죠.

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과연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던 전생에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전생에 가졌던 그 업을 우리가 이승에서 다시 만나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두 가지가 다입니까? 그러면 다신지가 얼마 안 되는군요.

▲질문자2: 예, 한 5개월 됐습니다.

▲스님: 신심이군요. 하하하... 그런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에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했죠? 닥의 마음이 당차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아닙니까? 모두가 허점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죠.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그 마무리를 못하는 것을 주인공에다 맡기고 하려면 닥의 말따따 통신이 돼야 하는데 통신은 되지 않고 힘들겠죠. 내 팔자 한탄까지 나오구

역시 아주 준엄하게 가르치신 뜻입니다. 참 감사 합니다. (합장하시며) 더운데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대중 웃음) 이렇게 동참하시고...

그랬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요 '야, 우리의 인연도 보통의 인연이 아니로구나. 지금 세(번)에만 만난 게 아니라 수억겁 세에도 우리는 같이 만나서 공부했잖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인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 친구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자 친구도 됐었고 남자 친구도 됐었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도 됐었고 그냥 자기가 자식도 됐었고, 자기가 부모도 됐었고 그냥 겁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할 공부하세요.

(합창단을 향하여) 음성 공양을, 공양을 또 잘 들어야죠. 공양이란 말 무슨 소리 줄 아시죠? 합창하는 게 공양이요. 공양!

※위 법문은 1996년 6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행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범죄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화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해당 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만들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시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에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주)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무처: 본인 거주지 ● 문의: 050-5244-0108

제48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선탠한 청경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축미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일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결실인 큰 업장 3가지는 물론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은 즉시 이뤄집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6월 25일(토) 저녁 9시~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담 땀을 용도), 두꺼운 면양모 2켤레, 면티 2매, 수면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않습니다.
- 장소: 분당 이매역 하안마을선원 대법당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로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북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정사 서울 군자법당**

오시는 길: 5,7호선 구자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방향으로 100M 이랑삼 가구 4층

문의전화: 02)456-4994, 0035(팩스겸용), http://cafe.daum.net/sorisan

뇌졸중! 민간요법으로 대비하세요.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방지가 최선입니다.

풍시노 요법으로 예방하십시오. 일본의 류슈 가코시마현 지방에서 유래되어 게이쇼엔 양로원 노인들이 실험하고 비법을 증언하여 일본 국민학교 교장 회의에서 발표되었다는 민간요법으로 이미 수만 명이 실험하였고, 음용한 분들은 아직 한 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소개되어 10여년 전부터 일본 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으며, 국내에도 여러 경로로 소개된 방법의 민간요법입니다. 국내에도 각종 경로로 전파된 정확치 않은 방법으로 직접 만들어 이미 음용한 경험자도 있는 뇌졸중 방지에 도움이 되는 식품요법이니 본 요법을 평생 수회만 반복 음용한다면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접해보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풍시노 음용자로 등록하여 회원이 되시면 뇌졸중 발생시 보상 지원금을 드립니다. (구입 금액의 300% 보상지원: 단, 5년간 1인당 1회만 적용됩니다)

- 허가 신고번호: 인천 제3-3-4호, 구로 제20 142호
- 품명: 풍시노 / ● 주원료: 매실, 머위, 기타, 혼합물
- 콜라겐 체감식도 판매합니다.

취급점 및 주부사원모집

오성생활건강 사업본부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4-3호 허은빌딩 202호
전화 02)542-5214, 010-6347-6200
팩스 02)542-5215

고(古)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주영동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치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휴대폰: 011-804-1748